



# 전주매일

## 전북교육 협력체계 구축 '맞손'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과  
교육협력 추진 전담조직 설치·현안 해결 협력 약속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전북교육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은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교육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약속했다. 두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교육 협력을 약속한 것은 전북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는 것에 서로 공감하면서 향후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 당선인은 28일 오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중회의실로 김 도지사 당선인을 찾아가 회담을 갖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통합적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별로 분산되고 중첩된 교육정책을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전북교육을 펼쳐나가겠다는 서 당선인의 의지다. 또한 '(가칭)전북교육협력공공회의' 설치·운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 당선인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지역교육 공동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서 교육감 당선인과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치로 전북형 교육공동체협력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우선, 전북교육협력추진 전담조직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과제 해결, 그리고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방과 후·돌봄 운영, 진로체험 활동 지원 등 교육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 당선인은 일선 시·군과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 당선인은 "이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 하던 시절은 지났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적극 협력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저로 한 전북교육의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무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사진 왼쪽)은 2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소통과 협치로 지역교육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혁신성장과 인구증대의 길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합의한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함께 혁신하며, 전북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탄소산업, 미래 먹거리"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탄소진흥원 찾아  
현황 파악·육성 방안 모색·건의사항 청취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탄소산업진흥원을 에서 전북의 탄소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과 성도경 인수위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이하 혁신경제 TF)은 28일 한국탄소진흥원을 방문해 탄소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탄소·수소 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전문인력 양성, 탄소 관련 기술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당선인은 "미래 산업의 핵심 키

워드 중 소재 분야는 탄소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 경제 생태계에 탄소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 15대 정책과제에도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 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방산·우주, 건설 등 5대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래 먹거리"라며 "우리나라 탄소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탄소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자립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장마철 이전 사방댐 조성 완료 총력

전북도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의 유기철 이전 사업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6억원을 투입해 114개소에 사방댐 조성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의 99%를 조기 완료했고, 잔여 사업도 7월 말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루로 내려오면

하기 위해 사방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그간 도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철 이전 사업 완료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사방시설물 중 600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은 준설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방시설이 재해예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8일 '2022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북도 각 시·군·직속기관과 도 소속 공공기관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총 32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도민 온라인 심사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상을 거뒀다. 이날 본선에서는 도민 인식개선, 편의증진, 기업 기술지원 등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 도민 체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도 119종합상황실 '고속도로 스마트 신고 표지판 설치'  
정읍시 '미준공 대형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방안' 최우수상

발표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 심사결과 도 부문에서는 119종합상황실이 최우수상을 탄소바이오산업과 및 환경보전과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시군 부문에서는 정읍시가 최우수상, 군산시 및 진안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119종

합상황실의 '고속도로 Smart 119신고 표지판 설치 및 GIS 위치표기 체계 구축' 사례는 고속도로 119신고 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위치파악을 위한 시점 표기방식 개선 및 119신고접수시스템 내 고속도로 시점 표기보정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발생 장소 신속 파악

및 출동을 가능하게 해 민원 편의 및 행정효율을 제고 전문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탄소바이오산업과의 버려지는 탄소섬유, 재활용으로 기업에 활용' 및 환경보전과의 '탄소종립 실현, 생태문명 선도! 나부터 작은 것부터' 사례는 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읍시의 '홍몰로 20여년간 장기방치된 미준공 대형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방안 추진' 사례는 각종 법적 소송 및 유치권 등으로 인해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 시군 이관으로 도시 미관 저해 등

문제를 발생시키던 장기방치 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재사업 추진을 지원해 도민 안전 확보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시군 부문 우수상은 군산시의 '한국최초, 시민참여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사례 및 진안군의 '1m 진안창원' 사례이다. 도 부문 최우수사례에 뽑힌 119종합상황실의 유성일 소방장은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5만원(시군 20만원) 상금이 부여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30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